광주고법 박주선의원 항소심 결과 날선 질의
광주지검 CNC 사건 무리한 수사 질책 예고

법사위 등 오늘부터 광주·전남 국감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일 광주고법과 지법, 광주고검과 지검을 시작으로 본격화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광주지법과 고법, 광주지검과 고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며,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는 16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 전남대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진행한다. 18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광주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22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광주시청과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법·지법, 광주고검·지검 등의 국감에서는 박주선 의원 관련 항소심 결과와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 수사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선 광주고법에 대한 국감에서는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벌금 80만원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한 항소심 결과를 놓고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식으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극단적인 차이가 난다면 국민의 사법적 신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항소나 상고를 하면 감형이 된다는 기대감을 높여 소송 남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지검 산하 순천지청이 수사에 착수했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CNC 관련 사건 역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선거비용 과다 계상 혐의를 잡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조사까지 했으나 결국 입건유예 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입건 대상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해 진보교육감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수사를 착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교원 특채비리'와 '보문고 자사고 반납 사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립교원을 공립교원으로 특채하는 과정에서 2순위의 전교조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가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교육청 국감은 순천대 총장 시절 각종 비리 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남대 국감에선 총장 직선제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예정된 광주시에 대한 국감은 국제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합작 투자사업법인(법인명 갬코) 문제와 광주시청 개청 이래 최대 입찰 비리로 손꼽히고 있는 '총인 사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2순환도로의 소송 진행상황과 용연정수장 수돗물 사고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윤현석기자 cki@

주한미국대사관과 광주시청 공동주최로 열린 아트 워크숍이 빛고을 시민문화회관 4층 다목적홀에서 문화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트워크숍' 개막… 오늘까지 亞문화전당 열띤 토론

광주시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최하고 광주일보가 후원한 '2012 아트워크숍'이 10일 오전 11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개막됐다.

'융합'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의 다양성과 차이를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전국 12개 시·도에서 참석한 문화전문가 25명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공개강좌에는 100여 명이 몰려 워크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워크숍은 11일 오후 3시나 건 홍익대 교수(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의 사회로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결과보고회를 끝으로 폐막한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기아車 광주공장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후원

강운태(가운데) 광주시장과 기아차 김종웅(왼쪽 두번째) 광주공장장, 박병규(〃 첫번째) 노조 지회장 등이 10일 광주시청에서 '기아차 광주공장 광주지역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후원 MOU를 체결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광주지역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을 후원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10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시와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후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기아차 김종웅 광주공장장·박병규 노조 지회장, 박태식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분과 위원장, 한신애 광주시 다문화가족거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날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후원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협약에 따라 광주지역에 사는 4000여 가구의 다문화가족 가운데 20가구을 선정해 고향 방문을 지원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광주시 각 구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격 조건은 최근 2년 이상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소득수준 최저 생계비 150% 이하(월 220만원, 4명 기준)를 충족해야 한다. 또 친정 이야기, 가족이야기, 친정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 등과 관련된 수기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가정에 고향 방문 혜택이 주어진다.

김종웅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지역사회의 많은 다문화가족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예산낭비 심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9월 6개 지자체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시한 후생복지사업 행동강령 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 후생복지사업은 직원들에게 배낭여행, 선진국 견학, 체험활동, 테마견학 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2010년 107억원(113개 지자체), 지난해 122억원(126개 지자체)으로 사업예산 및 시행기관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조사 대상 6개 지자체 가운데 5개 지자체는 직원 138명이 실제 테마견학 등을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견학을 다녀온 것처럼 보고서 등을 조작해 1590만6000원의 예산을 부당 수령했다.

구체적으로 전남의 한 지자체는 '직원능률향상 벤치마킹'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 대상 공무원 791명 중 51명(6.4%)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1인당 13만원씩의 예산을 지원, 총 653만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했다. 또 경남의 한 지자체는 '직원테마견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 38명, 2011년 15명이 실제 견학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모두 53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벨 화학상, 美 레프코위츠·코비카 공동 수상

레프코비츠

코비카

로버트 J.레프코비츠 미국 듀크대 메디컬 센터 교수와 브라이언 K. 코비카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 교수가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0일 "G단백질 연결 수용체 연구에서 두 사람의 탁월한 업적을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광주시, 갬코 美 업체에 10만달러 더 줬다

'에스크로 계좌' 담보 70만 달러 대출 논란…市 "되찾을 것"

광주시 측이 부실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3D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갬코사업)과 관련해 미국 측 업체에 1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갬코의 광주시 측 업체인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 김병술 대표는 미국 LA현지 3D 컨버팅 기술테스트를 앞둔 지난 6월30일 우리은행 아메리카 지점에 에스크로 계좌(은행 등 제3자 예탁에 의한 조건부 인출 가능계좌)를 개설해 70만 달러를 입금했다. 이 돈은 GCIC가 출자기관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시 출연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

GCIC는 현지 기술테스트가 성공, 워크스테이션(고성능 PC) 15대가 국내에 도입하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70만 달러를 미국 측 업체인 K2AM에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지난 8월8일 우리은행의 에스크로 계좌를 미국 은행으로 변경한 뒤 에스크로 계좌를 담보로 70만 달러를 K2AM이 대출을 받도록 했다. K2AM측은 대출금 가운데 10만 달러를 기술테스트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60만 달러는 K2AM 측 변호사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결과, 3D 컨버팅 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K2AM 측에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채 650만 달러를 직접 송금한 것은 잘못했다며 에스크로 계좌 미개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후 형식적으로 70만 달러의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해놓고 실제로는 직접 송금과 다를 바 없는 담보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감사원 감사를 무시한 것은 물론 광주시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에스크로 계좌를 변경해 K2AM이 대출을 받도록 했다"며 "K2AM 측 변호사 계좌에 입금된 60만 달러는 현지테스트가 실패했기 때문에 GCIC 측 변호사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출금이 불가능하며, 이미 지급된 10만 달러와 함께 미국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대법관에 김소영 부장판사 제청…4번째 여성 후보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소영(여·47·사법연수원 19기·사진)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대법원이 10일 밝혔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 박보영 대법관과 함께 두 명이 여성으로 채워져 '복수 여성 대법관 시대'가 다시 열린다.

또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에 이어 사상 네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김 후보자는 현재 만 46세 11개월이어서 임명이 되면 이회창 전 대법관(임명 당시 만 45세 10개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법관에 오르게 된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29회)에 수석 합격한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최초로 여성 심의관을 지냈다. /연합뉴스

철학연수원
수강연수 강의료 무료!
현재 무속인 역술철학 운영자 환영!
수강종목
사주명리 기초부터 완결까지 6개월
자미두수 천문별빛의 굴절과 인간의 운명,노력의 결실과 숙명의 한계성 강의, 경천동지할 비술의 세계, 기초에서 완결까지 6개월
풍수지리 실전풍수의 음양택비결, 땅의 성정이 실로 지향하는 바가 정녕 무엇이며, 그 진실과 허상을 증명해 간다. 기초에서 완성까지 6개월
禪의 길
조작되는 인간의 뇌파와 우주관, 과연 도닦는 일도 숙명인 것인가? 道의 구극적인 진성은 닦고 가공해서 만들어 내는 예술품이 아니다. 닦고 가공해서 만들어 내는 예술품이 아니다. 인식이 증명되는 과정의 지혜강의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포괄적 강의) 자격제한 없음
2012년 10월부터 매주 수 토 일 오후 2~5시
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댐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신용카드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입 · 매매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 개인 출장가능!
골드유통
010-2082-6353,062)383-6364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빌딩
토지(대지/전/답/임) 특수물건
※ 저희 한국공인중개사는 광주전역 및 나주, 담양, 화순, 장성 외 전남 전지역에 방대한 물건중 그중 투자수익율이 보장된 확실한 검증된 물건을 추천 중개 및 경매 참여하여 드리는 광주권 부동산 권리분석 전문 대표 부동산 입니다.
※ 광주, 전남 전지역 부동산 매물 접수합니다.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납골묘, 선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임야등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땅
광주,화순,담양,나주,장성,전남쪼지역
토지전문 부동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델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청앞)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넷째 줄러온 더블행운
취업과 병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과
100% 취업을 보장하는 학과
· 전국 최초 특전부사관과 개설 및 육군과 전국 최초 학군제휴
· 2012년 졸업생 100% 취업 – 부사관 80% 임관
· 2012년 특전부사관 군장학생선발시험에 전국 최다합격
· 특전부사관 및 육해공군 부사관에 동시 지원 가능 – 임관 100% 보장
· 교수 3명 전원 특전사 대령 출신으로 맞춤식 교육
박 환 수 교수 (예,육군대령) 전)제11공수 특전여단 부여단장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교수
윤 재 정 교수 (예,육군대령) 전)제11공수 특전여단 참모장 제13공수 대대장,작전참모 부여단장
이 성 춘 교수 (예,육군대령) 전)제1 공수 특전여단 중대장, 특정대장, 지역대장 국방부, 육군본부 정책실 강원도청 국방협력관
구 분 | 전형일정
수시 1차 | 2012. 08. 16. - 10. 09.
수시 2차 | 2012. 10. 29. - 11. 30.
정시 1차 | 2012. 12. 21. - 01. 10.
정시 2차 | 2013. 01. 21. - 02. 01.
정시 3차 | 2013. 02. 18. - 02. 25.
연락처 062-230-8920(학과실) 010-5339-9666(이성춘교수)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과